

■여수 을

주승용 4선·선거구 통합 여부 최대 관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63) 의원의 4선 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주 의원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호남지역 유일의 최다 득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중앙당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다.



주승용 국회의원, 박종수 중원대 교수, 이용주 변호사, 심정우 부대변인

하지만 전남도지사 도전에 두 차례 실패한 점은 정치적 부담이다. 이에 맞서 외교관 출신인 박종수(58) 중원대 교수와 이용주(47)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의 결집과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뜻을 품고 지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인의 출마가 점쳐진다. 심 부대변인은 여수세계박람회 예산 및 주요 SOC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 을도 여수 갑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의 통합여부가 내년 선거에 앞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구 통합 여부 결정 전까지 선거판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구례

신당 참여 관심 많아 후보 난립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58)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19대 의원을 지냈다. 당 내에서도 원내 수석부대표·정책위원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 입지가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다.



우윤근 국회의원, 박근표 시청자센터장, 서동용 변호사, 김광영 전 공사 교수

현재 총선 물망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비중있는 인사들은 3선을 향해 뛰는 우 의원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광양읍을 비롯해 부락단위의 농촌지역이 많은 광양시의 경우 중마동과 광영동 등 도심지와 농촌지역의 성향이 갈린다. 이에 따라 지역 지지세를 받고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만큼 선거판이 복잡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김현욱 전 시선대위장, 이승안 당원협위원장, 유현주 전 도의원

현욱(70) 전 김대중 대통령후보 광양시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승안(63) 광양·구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노동계에선 유현주(44) 전 전남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내년 총선에서 광양과 통합됐던 구례가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장흥·강진·영암

소지역주의 팽배 ... 특정후보 독주 힘들 듯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63)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에선 박준영(69) 전 전남도지사와 장흥출신인 안재경(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김영근(56) 전 중앙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황주홍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안재경 전 광주경찰청장, 김영근 전 비서실장

3선 강진 군수를 지낸 황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의원은 강진 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다. 박준영 전 도지사는 최근 신당을 창당 하면서 광복행보를 하고 있다. 박 전 지사가 신당 창당 후 해당 지역구로 출마할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해당 지역구에선 후보군들의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은 뚜렷한 총선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만 강진군을 시작으로 영암군과 장흥군의 기관, 상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암·강진·장흥 지역구는 소지역주의가 팽배한 지역의 특성상 특정후보의 독주는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단계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신당 창당에 따른 여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전매치 예상되고 있다. 이 선거구 역시 지역구 통합여부가 선거에 앞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통합 여부 결정 전까지 선거판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정치력 있는 기존 의원들끼리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순천·곡성

이정현 재선 가도에 전·현의원, 전 시장 도전

지난해 재보선에서 야당 텃밭에 새누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57) 의원의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이 의원의 재선 여부가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 의원은 재보선 당시 “호남에 예산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민심은 극단적 양분 상태다. 이 의원이 공약한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배는 갈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신당 창당이 잇따르는 등 민심을 거스르는 야당의 행태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선 호재다.



이정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서갑원 전 국회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광진(34)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또 재보선에서 이정현 의원에게 패한 서갑원(52) 전 의원도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구희승 변호사, 소병철 전 검사장, 김선일 순천대 교수

또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김선일(50) 순천대 교수, 소병철(57) 전 대구고검 검사장, 구희승(53) 변호사 등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노관규 전 시장과 서갑원 전 의원이 사실상 적대적 관계라는 점에서 새정치가 이를 어떻게 규합할 것인지가 변수라는 반응이다.

■담양·장성·함평·영광

구례·곡성, 어느 선거구 포함될 지 촉각

지난해 보선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56)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 가운데 정기호(61) 전 영광군수의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과 전남도행정복지사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보선에서 당선된 뒤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당내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다. 이 의원은 또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법인세 인하 이슈를 만들 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 정기호 전 영광군수, 강형욱 연구원장, 이준호 효창산업 대표

강형욱 서북 전남발전연구원장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 원장은 영광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실장, 전남도 경제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KIC) 감사를 지냈다. 강 원장은 현재 영광에 서북 전남발전연구원 사무실을 차린 뒤 지역민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60) 의원의 3선에 해남 출신 입지자들의 도전이 뜨겁게 달아올라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이준호(55) 효창산업 대표이사의 출마가 점쳐진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이개호 의원과 맞붙어 20%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 지역구의 변수는 구례와 곡성이 어느 선거구로 포함되느냐 여부다. 19대 총선에서도 한 차례 선거구 재조정으로 혼란을 빚었던 지역구인 만큼 이번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출마 예정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때문에인지 현재까지 이들 외에 아직은 뚜렷한 총선 행보를 보이는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선거구 확정 이후 최종 결정되고 신당 창당작업이 마무리되면 각 후보자들이 쟁점을 따져보고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완도·진도

인구 많은 해남 출신들 거센 도전

3개 군이 한 지역구로 묶인 해남·진도·완도 선거구는 총선을 겨냥한 후보군의 난립이 뚜렷하다. 완도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60) 의원의 3선에 해남 출신 입지자들의 도전이 뜨겁게 달아올라 전망이다. 해남·진도·완도의 경우 총선 입지지만 현재 수 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완도 출신 김종식(65) 전 완도군수와 해남 출신인 윤재갑(60) 전 해군군수사령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영록 국회의원, 김종식 전 완도군수, 윤재갑 전 해군사령관, 민병록 효산건설 대표

또 19대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민병록(62) 효산건설 대표이사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거물급 인사로 출마가 확실시되던 전 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근 들어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김영록 의원과 김종식 전 군수는 모두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김 전 군수는 완도

에서 3선 군수를 지낸 저력을 지녔다. 이 지역구는 후보군 대다수가 해남·완도 출신으로 진도는 아직 뚜렷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남의 높은 경쟁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의 인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소지역주의 정서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구는 해남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또 선거구 확정에 따른 변수도 남아 있다. 현재 해당 선거구는 해남·진도·완도인데, 다른 지역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 합쳐지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주·화순

혁신도시 외지 유권자 표심이 승부 변수

지난해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51) 의원의 재선 여부가 관심사다. 전남도의원과 나주 시장 등을 지낸 신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뒤 농어업당 원내부대표와 전국농어민위원장 등을 맡으며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신 의원은 선거구 확정문제를 다루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 확대를 주장하는 등 민감한 문제를 소신 있게 잘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신정훈 국회의원, 최인기 전 국회의원, 박선원 전 안보비서관, 김중우 전 조합장

신 의원은 재선 도전에 맞설 후보로 박선원(52)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최인기(71) 전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농림수산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에선 김중우(57) 전 나주동강

농협 조합장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김중우 전 조합장은 지난해 재보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맞붙어 패했지만 새누리당 후보로선 처음으로 22.2%라는 높은 득표율로 관심을 받았다. 이 지역구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한 나주 민심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원주민 외에 수도권 등 외지에서 온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나주 출신 후보가 출마한다는 점에서 화순 유권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확정문제가 변수다. 현재 나주·화순 지역구는 분리된 뒤 무안·신안 등의 지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흥·보성

인구하한선 미달 ... 선거구 확정따라 요동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50) 의원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데 국민의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장성민(52) 전 의원과 김철근(47) 동국대 겸임교수, 김범태(61)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 장성민 전 국회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인 김승남 의원은 초선이지만 의정활동 시간 이외엔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과 소통을 넓히는 등 지역구 관리를 탄탄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당에선 부대변인과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입지기반을 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선정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진중근(68) 전 군수의 출마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앵커로서 인지도를 넓히고 있으며 김철근 교수도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장귀석(60) 당협위원장



김범태 투명성기구대표, 진중근 전 군수, 장귀석 당협위원장

의 출마가 점쳐진다. 다만 이 지역구는 인구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가장 변수가 많은 선거구다. 고흥·보성만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을 붙이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신당 창당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안

이윤석-서삼석 리턴매치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55)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서삼석(6) 전 무안군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에서 한 번 맞붙은 사이라 치열한 리턴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석 의원은 중앙당 조직본부장 직책을 맡은 만큼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윤석 국회의원, 주영순 국회의원, 서삼석 전 무안군수, 백재욱 전 국장

하지만 3선 군수를 지낸 서삼석 전 군수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남도의원, 무안군수 등을 역임한 서 전 군수는 탄탄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민심을 살피고 있다. 특히 무안 기업도시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던 서 전 군수의 파괴력은 이 의원의 재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 전 군수의 경우 신당 참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바탕 승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선 비례대표 주영순(69)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정책특보 등을 지낸 백재욱(50) 전 중앙당 국장도 다양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역구 역시 인구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로, 목표와 통합이 이뤄져 목표감·을 선거구로 나뉠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선거구가 예상대로 나뉘는 경우 현역 의원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후보군들이 신당에 합류할 경우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